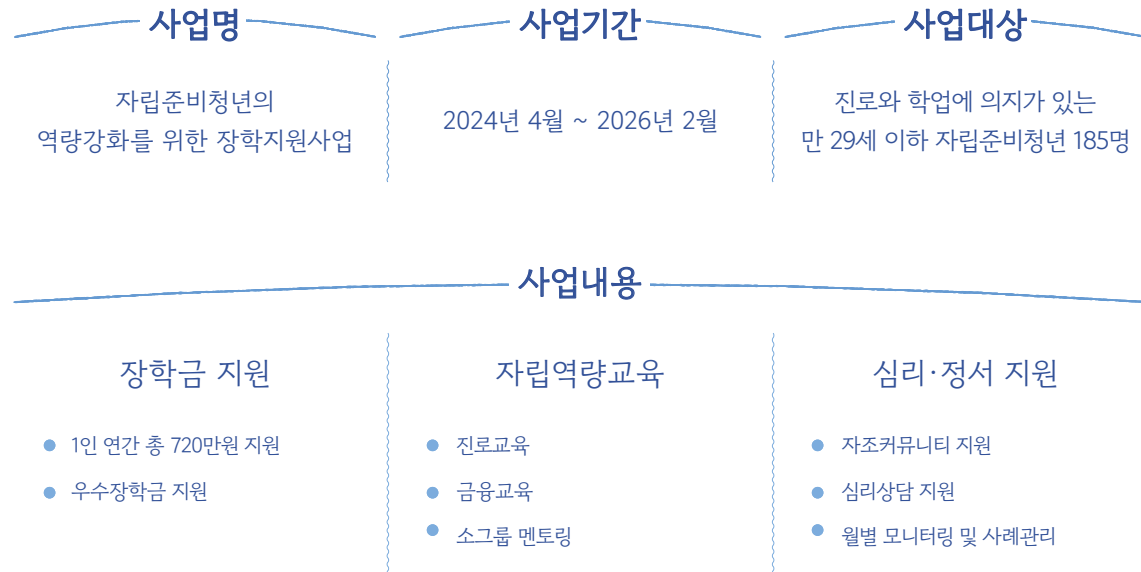

신한장학재단과 하트-하트재단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자립준비청년의 역량강화와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자립준비청년 장학지원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꿈과 진로를 위한 치열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 에세이집은 그 치열한 과정 속에서 멈추지 않고
성장해 온 장학생들의 성장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의 다음 걸음을 함께 기대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장학지원사업 우수장학생 에세이집

사업소개



사업성과(2024-2025년)



히스토리



01

보답, 적어도 받은 것 이상으로



김우민 장학생

지난 2년간 장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고, 이제는 학업을 마무리하고 취업이라는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섰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제 노력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고, 곁에서 묵묵히 기회를 만들어 주신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이었음을 글을 쓰며 다시 느꼈습니다. 특히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신한장학재단과 하트-하트재단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장학금을 다소 무심하게 받아왔습니다. 장학생 선정이라는 결과만 바라보며, 그 뒤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애써주셨는지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지원이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회의와 결정, 그리고 한 사람의 삶을 응원하는 진심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의 노력이 모여, 오늘의 제가 있음을 깨달았고, 그 사실 하나하나가 무겁고도 감사하게 다가옵니다.

지난 1년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대기업 대외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콘텐츠 직무를 희망하며 사기업 서포터즈 활동을 여러 번 지원해 왔지만, 연이어 불합격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단의 지원 덕분에 유료 디자인 및 영상 편집 도구를 활용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원했던 기업의 대외활동을 수행하고 수수료까지 마쳤습니다. 이제는 대기업 취업을 새로운 목표로 삼아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8개월 전, 우수 장학생 신청 제안을 받고 해외 어학연수를 고민했던 때가 떠오릅니다. 해외 경험이 많지 않았기에 가벼운 ‘도장 깨기’ 같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정 소식을 듣고, 그간 기회를 가볍게 여긴 제가 부끄러웠고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채워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때의 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잘 도전했고 연수를 잘 다녀온 후, 받은 만큼 보답할 차례다”라는 말입니다.

마음껏 꿈꾸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해외로 나아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재단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아직 모릅니다. 다만 저 역시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만은 분명합니다. 건강한 사회인이 되어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언젠가 저 역시 누군가의 가능성을 믿고 지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원하는 기업 합격까지 최선을 다하고, 사회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역량과 태도를 갖추기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가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적어도 제가 받은 것 이상으로는 치열하게 살겠다는 다짐만은 변함없습니다. 응원과 지원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귀한 마음의 무게를 잊지 않고 책임 있게 살겠습니다.



02

포기했던 꿈 앞에 다시 서다



김민지 장학생

신학장학재단과 하트-하트재단을 만나기 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며 훈련했고, 수많은 도움으로 양육시설 청소년과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해 설립된 음악 중고등학교에서 음악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학한 중학교 3년 내내 학교폭력을 겪으며 마음의 힘을 잃어버린 저는 음악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 채 도망치듯 음악을 포기하고, 아는 이가 없는 동네의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럼에도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컸고, 음악으로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문제로 꿈을 포기해야 했고, 학업에 흥미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진도 따라가기에만 급급했던 나날이었습니다.

‘음악이 아니라면, 대학에 가고싶지 않아.’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시기, 이 사업에 참여한 후 제 마음가짐부터 상황까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감사하게도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음악 학원에 다닐 수 있을 만큼의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은 후 꿈에 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힘이 생기니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감았던 눈을 다시 뜨니 세상이

정말 반가웠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개인 연습실과 음악 연습에 필요한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6, 7개월은 순식간에 흘렀고, 대학 시험을 치렀습니다. 아직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채 정시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음악을 선택한 것에 후회는 없습니다. 앞으로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더라도 평생 음악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신학장학재단과 하트-하트재단의 후원 덕분에 삶에 희망이 생겼고, 행복도 톡톡이 찾아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해준 재단에 다시 한 번 큰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03

작은 실행이 만든 1년



한민준 장학생

장학생으로 선정되기 전, 저는 바쁘게 살았지만, 정작 성과는 없었습니다. 수업, 실습과 학부 연구생 활동까지 병행했지만, 연구를 좋아하는 마음과 달리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 계획은 쉽게 흐트러졌고, 결과에는 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며 자신을 믿고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난 진로·금융 교육은 지난 20여 년 동안 제가 받은 교육 중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타인에게 맞추어서 무언가를 갈망해 왔다면, 진로 교육을 통해 자신을 오롯이 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조언처럼 글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막연하던 목표가 구체적인 실행 항목으로 나누어졌고, 그 과제를 완수하는 일이 쌓여갔습니다. 작은 실행을 하기 위해 글을 적는 좋은 습관이 생겼습니다.

또한 장학금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등록금 납부 문제로 지난 학기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장학금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학습에만 집중하여, 좋은 결과를 내었습니다. 계절학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교양수업을 들으며, 한약사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여름방학이 끝난 시점에서, 저는 제 진로의 방향을 탄탄히 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교재와 학습교구를 마련하여, 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교재를 구매하지 못했다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학과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장학금은 교육 전반에 걸쳐 지원되었기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저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지지자입니다. 금전 문제로 곤란하던 저에게 등록금 문제와 학업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 지지자입니다. 진로·금융 교육을 비롯하여, 미래를 구상하고 방향을 정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의 따뜻한 손길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선생님들께 받은 은혜를 환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04

시행착오를 기꺼이 마주할 용기



이송하 장학생

장학사업에 참여하기 전의 저는 늘 버텨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도 도전해 보고 싶은 일도 많았지만, 현실적인 부담 앞에서 선택지는 늘 제한적이었습니다. 미래를 길게 설계하기보다는 당장의 안정과 유지에 더 많은 공을 들이던 시기였습니다.

이 장학사업은 그런 저에게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시간의 밀도입니다. 과외와 같은 경제 활동과 학업 사이에서 나뉘어 있던 시간이 비교적 정돈되면서, 온전히 공부와 진로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당장 눈앞에 놓인 학업과 생활을 감당하는 데 급급했다면 이제는 제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왜 그 길을 가고 싶은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를 차분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학생이라는 이름은 자연스럽게 책임감을 동반했고, 이 감정은 더 열심히 살게 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눈에 띄는 성과보다 태도가 가장 크게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제게 주어진 일을 잘해내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그 과정과 의미를 함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시도를 미루기보다는, 작은 선택과 사소한 도전이 쌓여 앞으로의 방향을 만든다는 점을 체감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의 저는 1년 전과 생각의 방향이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불안 속에서 선택을 줄이려 했다면, 현재의 저는 시행착오를 감수하더라도 선택의 폭을 넓히려 합니다. 장학금은 삶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준 것뿐 아니라, 문제를 마주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1년의 경험을 발판 삼아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전공 분야에서의 역량을 더 탄탄하게 하는 것은 물론, 제가 받았던 도움을 기억하며 언젠가는 다른 형태로 사회에 되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장학사업이 저의 가능성을 믿고 지원해 주었듯이, 저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 동안 변함없이 지원해 준 재단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장학사업은 저에게 단순한 지원 이상의 의미를 남겼고, 그 경험은 앞으로의 선택과 방향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줄 것입니다.



05

불확신함에서 확신으로



장민주 장학생

음악 치료사를 꿈꾸며 대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늘 연습과 수업, 공연 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호주와 제주국제관악제에서 연주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무대에서 곡과 연주,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기에, 단순한 연주 경험을 넘어 앞으로 제 삶에서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고 싶은 마음과 달리, 현실적인 경제적 문제 앞에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기쁘게도 장학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었고, 도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호주와 제주도에서의 연주는 제 시야를 넓혀 준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의 연주와 오페라하우스 공연 관람은 음악전공자로서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연주를 듣고, 또 직접 무대에 올라 공연하며 느꼈던 설렘과 벅찬 감정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국적과 환경, 모습은 모두 달랐지만 음악으로 하나가 되었던 순간들 속에서, 음악과 무대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을 다시 한번 믿게 되었습니다. 음악 치료사를 꿈꾸는 제가 왜 이 길을 택했는지도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이전의 저는 꿈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확신이 부족했고, 현실적인 고민 앞에서 자주 흔들리며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 이후 음악의 힘과 의미를 몸소 체감하며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음악치료대학원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학원 과정에서 전문적인 이론과 임상 역량을 차근차근 쌓아가며, 연주 경험과 실제 치료 현장을 잇는 음악 치료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얻은 다양한 문화와 무대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과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치료를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음악치료의 가치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음악이 누군가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제 배움을 사회에 나누는 음악 치료사가 되고 싶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망설이던 제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용기를 건네준 소중한 기회에 감사합니다. 또한 그 뒤에서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성장한 만큼 나누며 살아가는 음악 치료사가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06

미래를 위한 기반 마련



윤혜지 장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기관에서 5년을 지내며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뒤 자립한 윤혜지입니다. 현재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신한장학재단과 하트-하트재단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독립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학업과 아르바이트, 취업 준비를 병행하느라 지쳐 있던 제게 그 공고는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법적으로는 '자립준비청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부 기준상 쉼터 퇴소 청소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이 아닌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자립한 저는 여러 지원 제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한장학재단과 하트-하트재단이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자까지 따뜻하게 품어 주신 덕분에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장학금은 1년간의 월세와 관리비, 기본적인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월세는 제게 가장 큰 부담이었지만, 지원 덕분에 경제적 압박이 크게 줄었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또한 자기계발비 지원으로 어학 시험 응시료를

마련하여 교환학생 준비를 차질 없이 마칠 수 있었고, 그 결과 내년에 미국 대학에서 수학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장학금은 단순한 생활비를 넘어, 제 학업과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안정은 심리적 안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덕분에 해외 교환학생이라는 도전에도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고, 현재는 미국 대학에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수업을 듣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제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해외 체류를 넘어, 제 진로와 삶의 방향을 보다 깊이 고민하게 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장학생으로 살아간 지난 1년은 제 삶의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힐링데이, 자조모임, 금융 교육을 통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체감하며 큰 위로와 지지를 얻었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정 속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신 신한장학재단과 하트-하트재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07

홀로서기를 넘어 세상 중심으로



김하정 장학생

회계사라는 명확한 꿈을 품고 경영학과에 진학했지만, 마주한 현실은 숫자 정답처럼 명쾌하지 않았습니다. 자립준비청년으로 학업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은 저를 위축시켰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생활비 걱정에 전공 서적을 펼치는 시간보다, 아르바이트 공고를 살피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꿈을 향해 달리고 싶지만, 제자리걸음만 하는 듯한 불안이 일상을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제게 만난 장학 사업은 삶의 이정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2년 동안 이어진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도움 그 이상이었습니다. 생활비 장학금은 '시간'이라는 가장 소중한 자원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터로 달려가는 대신 책상 앞에 앉아 전공 지식을 쌓는 시간이 늘어났고, 마음의 여유는 실천적인 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자기계발비 지원은 역량을 체계적으로 다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시험 응시료와 교재비 걱정 없이 몰입한 결과,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한국사 2급, 전산회계 1급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며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배움은 강의실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모아 앙상블' 활동으로 낯선 분야인 바이올린에 도전하며 정서적 균형을 찾았고, 교내 축구동아리 회장을 맡아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장학금을 통해 받은 지지를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되돌려주는 경험은 제게 큰 의미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의 생계를 견디던 삶에서, 내일의 가치를 설계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결핍이 메워진 자리에는 자신감과 도전 정신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이름 또한 더 이상 위축의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온 시간을 증명하는 훈장이자,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장학사업을 통해 혼자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주변과 소통하고 연대하며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저는 공인회계사(CPA) 시험 준비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년간 쌓은 성취의 기억은 험난한 수험 생활을 견뎌낼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훗날 전문 지식을 갖춘 회계사가 되었을 때, 제가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곳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따뜻한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제가 받은 지지가 또 다른 희망으로 전달되는 건강한 선순환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2년간 저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신한장학재단과 하트-하트재단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08

새로운 경기장, 제2의 휘슬을 기다리며



차현오 장학생

체대 입시에 관심을 두게 되면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마음은 커졌지만, 실제로 도전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운동을 좋아해 꾸준히 해왔지만 대학 입시에 도전해도 괜찮을지 자신감이 부족했고, 체대 입시학원 비용 또한 큰 부담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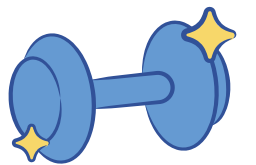
그러던 중 신한장학재단과 하트-하트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사업을 알게 되었고, 이 기회를 통해 꼭 한 번 도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되어 1년 동안 지원받으며 학원을 다닐 수 있었고, 이는 저의 생활과 마음가짐을 크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자, 운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하루하루 목표를 향해 의미 있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에서는 제자리 멀리뛰기와 메디신볼 던지기 등 체대 입시에 필요한 종목 중심으로 훈련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기록이 잘 나오지 않아 실망하기도 했고, 반복되는 훈련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많았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의심한 순간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마음을 다잡아 훈련에 임했습니다.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자세를 교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하며 기록은 점차 향상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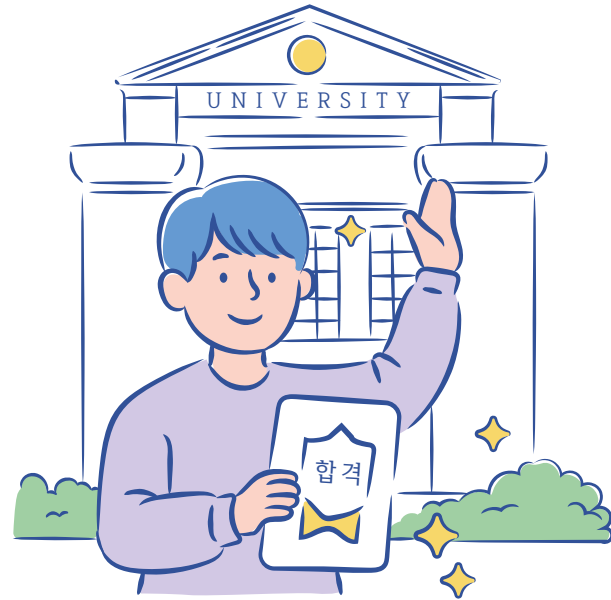
작은 기록 향상 하나하나가 큰 자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학원에 다니며 운동 실력뿐 아니라 마음가짐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끝까지 해보자는 태도가 자리 잡았고, 꾸준한 연습을 통해 인내심과 책임감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대학교 합격을 확인하던 순간 그동안의 시간이 떠올랐고, 체대 입시를 준비하며 보낸 노력은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합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이제 저는 운동을 잘하는 학생을 넘어 체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장학금은 저에게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준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경험을 마음에 새기며 목표를 향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09

꿈을 향한 전환점, 나의 성장



김채민 장학생

사업 참여 이전의 저는 걱정과 불안에 늘 시달렸습니다. 미래에 대한 근심은 많았지만, 무엇보다 해나가야 할지 몰라 막연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시설 선생님을 통해 알게 된 장학지원의 기회는 삶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장학사업 참여의 기회는 저는 제 미래에 열중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생활에서도 여유가 생겨 본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학금을 받기 전의 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학원에 다니며 수학과 영어에서도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고, 실제 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전략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움이 저에게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 큰 결실로 돌아왔습니다.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본 사업을 통해 경험했던 많은 활동들도 저에게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다 보니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 처음엔 막막하게 느껴졌고 걱정스러웠습니다. 물론 실제로 서울에 기차를 타고 가는 건 힘든 일이었지만, 홀로 서울까지 왕복하는 과정은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서울에서 참여한 활동들도 매우 유익했습니다. 처음엔 본 사업에서 참여하게

된 프로그램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 생각했지만, 대부분이 저희의 정서적, 실질적 자립을 돕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자립을 앞둔 또래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거리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고 그분들의 꿈과 가치관, 방향성에 대해 듣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이 시간 덕분에 간혀있던 사고방식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저의 진학과 진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필요한 것도 배워야 할 것도 많았지만, 다행히도 저는 본 사업의 지원 덕분에 부족함 없이 치열하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성균관대 경영학과에 합격하는 기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기회를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과정을 성실히 준비하며, 제가 받은 이 기회를 다시 사회에게 환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10

말하는 대로



민윤지 장학생

유재석·이적의 노래 <말하는 대로>의 첫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스무 살 적에 하루를 건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말하는 대로.”**

10대 때는 무한도전을 보며 별생각 없이 흥얼거렸던 가사의 의미를 이제는 압니다.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비롯해 많은 것들이 불확실했습니다. 연말의 싱숭생숭한 기분이 더해져 쉽게 잠들지 못하는 밤이 늘어났습니다. 습관적으로 내일, 내년을 생각하느라 정작 오늘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이 저물 무렵, 확실하게 예정된 것은 2월 졸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1월, 졸업을 승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1월, 서류 누락으로 졸업을 승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결과를 반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러 곳에 전화를 돌렸지만 돌아온 답은 같았습니다. 명백히 저의 실수였습니다.

자책이 이어지던 어느 날, 플레이리스트에서 ‘말하는 대로’가 흘러나왔고 그 가사가 유독 슬프게 들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있던 날, 방 한쪽에 붙여둔 엽서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 되면 되는 거 해라’ 그 문장을 소리 내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지나간 일을 붙잡고 있어도 바뀌는 것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한마디가 마음가짐을 바꿔놓았습니다. 졸업이 어려워졌다면, 되는 일을 해보자고 말입니다. 그러던 중에 장학생 모집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신기하게도 ‘우연히’ 졸업이 미뤄진 덕분에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되었고, 장학생 지원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준비해야 할 자격증과 어학 공부도 남아 있는 상태였기에 쫓기듯 결정한 졸업보다 더 나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졸업이 미뤄진 것 아니냐며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접장에서 만났던 장학생분들의 눈빛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고학년이 될수록 자립과 취업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 앞에서 꿈은 자연스레 뒤로 밀리곤 했는데, 그곳에는 여전히 꿈을 이야기할 때 눈에 빛이 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도록 먼저 말을 건네준 분도 있었습니다. 경쟁자로 경계할 수도 있었을 텐데 되려 제 면접이 인상 깊었다며 꼭 붙을 거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말들 덕분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면접장을 나설 수 있었고, 그 말처럼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장학생이 된 후에도 매달 담당 선생님께서 전해주시는 피드백은 큰 힘이었습니다. 목표를 이뤘을 때는 함께 기뻐해주셨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과정 자체를 의미 있게 봐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고서를 제출할 때마다 이번에는 어떤 말이 적혀 있을지 내심 기대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노래 <말하는 대로>는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품으며 마무리됩니다. 나의 장학 생활 역시 힘들 때 찾아 듣던 이 노래처럼 앞날에 대한 불안이 기대와 믿음으로 바뀌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지원서를 작성하며 졸업 전 도전해 보고 싶지만 포기한 일과 미룬 일을 솔직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나간 일을 생각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말했더니,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나조차 나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잘될 거라 말해주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힘든 순간이 오히려 좋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의식적으로 좋은 것들, 앞으로 좋아질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